효린·나르샤도 "나는 솔로다"

메트로 2013년 11월 21일



튼튼병원 디스크시술 각광

## 평균 2.27세! 스마트폰 처음 만지는 나이

우리나라는 평균 3세도 안 돼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연 세미나에서 만 0~5세 영유아가 세 살도 되지 않은 평균 2.27세에 처음 스마트폰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지역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의 26.4%가 3세, 23.6%가 1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썼다고 답해 평균 2.27세에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보면 0세가 33.45분, 1세 32.84분, 2세 29.56분, 3세 34.42분, 4세 28.60분, 5세 24.81분으로 대체로 최초 이용 시기가 어릴수록 이용 시간도 길었다. /조현정기자



오를 줄만 아는 물가·공공요금… 서민 가슴은 무너집니다

# 인상 또 인상…인상 펼 날 없네

### 전기료·건보료 이어 지역난방·도시가스요금도 오를 채비
###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데는 많고… 가계빚 갈수록 눈덩이

#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직장인 A(48·남)씨는 올해 연봉이 1000만원 가량 줄었다. 그러나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등은 한푼부지로 올라 동료들과 즐겨 하던 술자리도 피하고, 점심도 혼자 김밥 등으로 때우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이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3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 미치겠다"고 하소연하는 투에는 보여 "그나마 난 집 한 채라도 있지"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 3년 전부터 택시 운전대를 잡은 B(54·남)씨는 요즘 죽을 맛이다. 주위에서는 택시 기본료가 3000원으로 올라 좋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 사람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지 않아 한 달에 150만원 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매월 12만원씩 내는 회사 사납금이 당장 다음달부터 14만5000원으로 인상돼 눈앞이 캄캄하다.

경제 불황 여파로 샐러리맨의 지갑은 가벼워진 반면, 생필품과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생활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다.

전기료, 지역건보료에 이어 지역난방 요금도 다음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연료비 상승이 있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맞춰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역난방비는 1년에 4차례(3, 6, 9, 12월) 조정되는데 올해는 7월에만 가격 조정(4.9%)이 이뤄졌다.

도시가스도 들썩인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동결한 바 있지만 인건비 상승, 사회배려 대상자 지원 등 여러 인상 요인이 있어 다음달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물가도 줄줄이 올랐거나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평균 생활물가 인상률을 보면 미용료는 1만2874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776원(16%)이나 올랐고, 여관 숙박료도 3만8527원으로 4247원(12.4%) 올라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비빔밥이나 냉면·칼국수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비와 목욕료, 세탁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대거 인상됐다. 우윳값 인상은 다른 유가공 식품 가격도 위협하고 있다.

샐러리맨의 월급까지 위태롭다. 국민연금 등 급여에서 기본으로 떼는 돈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공요금의 핵심인 전기요금은 21일부터 평균 5.4% 인상이 확정됐다.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올랐다.

월평균 310kWh를 쓰는 가구의 경우 인상 전 4만8820원에서 5만130원으로 올라 매달 1310원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 어렵다지만 가계가 받는 충격은 더욱 크다.

문제는 가계마다 늘어나는 부채다. 서민의 경우 저금리 때문에 버티고는 있으나 저축은 고사하고 오히려 빚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1246만원으로 24.6% 늘어난 반면 5분위(상위 20%)는 지난해 1억3723만원에서 올해 1억3721만원으로 줄어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공공요금의 인상, 전세가 인상과 월세 압박 등의 악재는 앞으로 서민 부채의 증가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직장인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부문은 물론 먹고 입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행태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업체 사장은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싶은데 경영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젠 전기료까지 오른다고 하니 자라리 공장 문을 닫는 게 낫겠다"고 울먹였다.

<관련기사 10면>

/김민정기자 mjkim@metroseoul.co.kr

**연평도 도발 벌써 3주년**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앞둔 20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서해3묘역에서 관계자들이 고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의 대형 사진에 노란색 국화로 추모 연막을 걸들고 있다. 뉴시스

## 두 부류 신용카드 회원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카드 상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이름만 바뀌었을 뿐 비슷비슷한 상품들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카드사의 상술에 넘어가 혜택이 많은 듯한 카드를 발급받아도 오히려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회원 수수료만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잘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는 '우둔한 소비자'는 결국 자신이 필요한 혜택을 담은 카드를 잘 선택해 사용하는 '스마트 소비자'가 발생시키는 비용을 카드사 대신 떠안게 된다"고 귀띔했다.

카드사는 각종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원래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둔한 소비자의 회원 수수료에서 비용을 채우는 실정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원카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가맹점 범위가 넓어 편리하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통념과 달리 이 관계자는 "실익을 따지자면 특정 부가서비스가 심화된 카드 이용이 낫다"고 말했다.

카드 한 장을 발급받을 때에도 자신의 소비 습관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과 회원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hk@[illegible]

# 문형표 오늘 임명할듯

### 박대통령, 민주당 반대에도 강행 방침 · 여야 극한 대립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1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 김진태 검찰총장도 임명

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것이 뻔하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안전행정부는 전날 오전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전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문에서 박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국회가 20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부터는 언제든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두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복지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공백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민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국군 개인전투장비 폼나네" 합동참모본부가 20일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합동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관계자가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해보고 있다. /뉴시스

## 충청권 의원 수 조정 '여여 갈등'

충청권 의원 수 조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역 의원들 사이 연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충청(25명)이 호남(30명)보다 5명이나 적은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충청권 출신인 정 최고위원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보다 많음에도 의원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 충청권의 도민과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남권 출신인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인구 변화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며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환경 탓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성필기자

어르신 모델 맵시자랑 2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13 버드내 실버 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한 어르신들이 각자 자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이버사 댓글 靑 직보"…김관진 "사실무근"

군 수사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등 30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과 지휘계선을 포함한 수사 대상은 현재 30여 명 수준"이라며 "상당수 압수수색을 했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5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군 수사기관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사이버사가 국정원의 지침을 받고 심리전을 수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부인했다. /김민준기자

덕성여대 · 中 하문대 교류협약 홍승용(오른쪽)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주총스 하문대학 총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매년 5명의 교환학생 파견, 학술대회 간 교류, 양 대학 간 공동 연구 및 교류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덕성여대 제공

권익위원장과 키르기스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오른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키르기스공화국 아탐바예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 간 반부패 노력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양자 접견을 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빼돌린 주식도 증여세 대상" 노태우 조카 세금소송 패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우씨가 비매물가장에 주식을 분산 증여할 경우 누진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 & 뉴스

####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 손배소 패소

●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일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다음달 16일 개장

●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이 다음달 16일 개장해 내년 2월 23일까지 70일 동안 운영된다.

올해는 개장 10주년을 맞아 공간 디자인을 새로 구성하고 유아용 링크장을 별도 분리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입장료는 지난해와 동일한 1000원(대여료 포함)으로 책정됐다.

"농부 아저씨 마음 알겠네" 서울 성동구 어린이들이 20일 오전 서울숲 인근 도시 농업체험장에서 배추 수확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 "가슴 얼마나 컸나 만져볼까"

### 서정윤 시인 신체접촉 시인

대구경찰청은 20일 베스트셀러 시인 서정윤(56)씨가 여중생 제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여제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진학 상담을 위해 교사실에 부른 것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여중생은 "서 시인이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냐'고 말하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내주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 시인이 소속된 사학재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도 파면 조치하도록 요청한 데다 사회적 공분을 빚은 사안이라 파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다해기자

## '○○○건설' 문 열고 들어가니 스와핑 클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밀실에서 스와핑을 하도록 주선한 성매매 알선 업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47)씨와 실장 손모(여·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에 '분당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 빌딩에 '○○○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회원들끼리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정기자

##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 출생**

18세기 프랑스의 전제 정치와 종교적 맹신을 격렬히 비난하며 진보의 이상을 고취한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가 1694년 11월 21일 출생했다. 파리에서 나서 가톨릭 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청년기에 이미 반정부적 풍자 때문에 바스티유 감옥을 드나들었고, 그 후 생애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망명하여 지냈다. 영국에서 뉴턴의 물리학에 큰 영향을 받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는 진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우수를 [illegible] 철학자가 된 볼테르의 대표작은 사회적 불평등을 [illegible] 비판 '캉디드'다.

# 공공기관 좋은날 갔네

### 현오석 부총리 "다음달 초 강도높은 정상화 대책 발표"… 부채감축 포함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

지난주 이같이 경고했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초까지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초부터는 정부 국정과제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 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억새길 억수로 좋네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2교 인근에서 시민들이 물억새길을 걸으며 가을 뒤자락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뉴시스

이보다 앞서 19일 대전에서 열린 라반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현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을 보면 2010년을 빼곤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높은 경우가 없었다"면서 "내년 경제 전망은 세계 성장률보다 높게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경제 운용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올해 정부 부문이 주도한 경기 회복세를 내년에는 민간중심으로 유도해 일자리창출, 투자 활성화, 민간 소비 등 내수를 키울 방침이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를 가꾸고 경제 체질 개선 등 구조적인 경제 부문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마중물이란 말을 많이 썼다"며 "이제 불씨가 좀 지펴졌으니까 올해 말이 되면 풀무질을 좀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 국가귀속 토지 5년 소송 끝 되찾은 친일파 후손

친일파 후손이 경기도 고양시 벽제 임야 2만3000여㎡(약 6958평)를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조선사편신위원,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며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 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았지만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000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조현정기자 jh@

**안전공단 북항대교 현장점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9일 오후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부산 북항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날 백헌기 이사장 및 관계자들은 총 3000여m 길이의 해상 교량인 북항대교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 동해남부선 안락~기장 다음달 2일 운행선 변경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덕률)는 다음달 2일부터 동해남부선 안락~기장 구간 운행선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해운대역, 송정역을 이용하는 고객은 변경된 운행선 내에 있는 신설 해운대역, 송정역에서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우동에서 해운대~청사포~송정으로 이어지는 열차는 다음달 1일까지만 운행하게 된다. 따라서 2일부터는 변경 운행선에 신설된 해운대역, 송정역에서 열차를 타야 한다.

## '사랑의 몰래산타' 되세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는 자격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사랑의 몰래산타'가 올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몰래산타는 부산지역 청년 자원봉사자 3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내달 8일 발대식을 하고 거리 행진 등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달 21일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을 찾아다니며 사랑과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고지대 산복도로와 골목길 등에 벽화를 그리고 마을 환경을 밝게 꾸미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몰래산타는 부산에 사는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51)807-8814

## 모바일 마케팅 강좌 '손짓'

부산마케팅아카데미는 26일 모바일에서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지식을 공유하는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현직에서 한국 최고의 모바일 마케터로 정평이 나 있는 4명의 강사들로 구성된다.

이번 강좌는 고용노동부의 환급과정을 적용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신청은 22일까지다.

문의 051)809-3278

# 고층빌딩 항공장애등 일제 점검

### 최근 서울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 계기 부산시 29일까지 예방 활동

부산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부산지역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장애 표시등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높은 건축물이나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설치하여 불빛을 내는 전기 기구다.

항공장애등 설치 대상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 ▲90m 이상의 강·계곡,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 또는 지지탑 ▲항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강·계곡 또는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가공선 또는 지지탑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철탑 등 물체로서 부산지역에는 해운대 아이파크 등 고층 건축물 11개소, 광안대교 주탑 등 구조물 7개소에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돼 있다.

시는 이 건축물 등에 대해 점검 공무원 2개 조를 편성해 항공장애 표시등의 고장, 전구의 파손, 먼지나 물체 등으로 인한 불빛 차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설치 시설이 불량하거나 운영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 등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하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당근 수확 바쁜 함양 농민들 "추워도 좋아" 20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추위도 잊은 채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오하근기자

# 눈 번쩍 뜨이는 기술 한자리에

### 오늘 벡스코서 '국제발명·신기술 박람회' 개막

국내외 중소 벤처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이 개발한 발명 기술과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3 부산 국제발명·신기술박람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 한국발명진흥회, 벡스코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6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지역 유일의 대규모 발명 진흥 행사로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350부스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관, 창업보육관, 유관기관, 신기술관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기업의 판로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해 일대일 바이어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 창업보육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예비 창업자, 일반인 대상의 창업 컨설팅 상담회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계,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IT 등 기술 분야별로 전시관이 구분돼 행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부대행사로 우수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는 박람회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부산시장상, 특허청장상 등 40여 개의 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부산 시민발명경진대회, 특허정보검색대회도 진행된다.

박람회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입장료는 무료고 단체 관람 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 빛 바랜 사진 속 '해변의 추억'

###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옛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옛 사진 보면서 아련한 추억을 떠올려보세요."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안내소 1층을 전시장으로 꾸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옛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진행한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옛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 30여 점을 전시한다.

공모전에서 가작을 수상한 김철근씨가 본인의 작품을 가리키며 웃고 있다.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피서객들의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아련한 추억에 젖어들게 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번 사진전이 더욱 의미 있다"며 "해운대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사진전에 많은 시민이 관람하고 해운대를 더 사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진전은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정하균기자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주인공인 호랑이 인형 모습 /동래경찰서 제공

## 도심에 호랑이 출몰? 인형 보고 오인 신고

새벽 부산 금강공원 인근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누군가 호랑이 인형을 버린 것이었다.

15일 오전 4시께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 매표소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경찰에 호랑이 출현 신고를 했다.

이에 인근 지구대 경찰 등이 긴급 출동, 제포 직전 예 돌입했으나 확인 결과 1m가량 크기의 호랑이 인형이 가로수 옆에 앉아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두컴컴한 새벽길에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독립운동가 한형석 거택 새단장

## 시, 다음달 주변 정비 완료…산복도로 탐방객에게 새 볼거리 제공

부산시는 독립운동가이자 향일 음악가인 고 한형석 선생이 서구 부민동에 한국 최초 아동 전용 극장인 '자유아동극장'을 세웠던 것을 기념해 '한형석 선생 거택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선생은 일제강점기 광복군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과 항일가곡 등 100여 곡의 작품을 남긴 음악가다. 그는 해방 후 부민동의 자유아동극장, 야학 등을 통해 청소년 예술 교육의 터전을 닦은 문화예술 책임가이자 교육 선각자다.

아울러 선생은 광복군 제2지대 선전대장 등으로 복무하면서 작곡과 가극 활동을 통해 우장 항일 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은 인물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선생은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고 한형석 선생 거택과 그 주변의 정비 후 전경 조감도.

시는 지난해 산복도로르네상스 2차년도 마을만들기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부민동 주민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낡고 노후한 한형석 선생 거택 주변 정비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11월 중순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디자인 개발 과정에는 수자레에 걸친 유가족 협의와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관한 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최종 디자인은 선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오선지를 배경으로 아동극장으로 뛰어가는 어린애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선정됐다.

이번 정비사업 완료 후 임시수도기념거리, 조망쉼터 아미골 산색을터, 까치고개 푸른쉼터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활용돼 산복도로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잊혀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향후 시의 재정 여건에 나아지면 아동극장 복원 등 대대적인 한형석 선생 기념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은 12월 중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 '기업실적 분석 및 증시전망' 금투협 다음달 10일 첫 강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다음달 10일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 금융투자회사 영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실적 분석 및 증시 전망' 이슈 과정을 개설키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은 2013년 상장사 실적 분석 및 증시 전망에 대한 학습을 통해 2014년 투자 유망 업종의 사전 탐색 및 효과적인 주식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다.

수강생들은 올해 시장별(유가증권·코스닥), 업종별 수요 기업 실적 분석 및 내년 경제 및 증시 전망 등을 학습하게 된다.

또 내년 정부와 경제정책 방향 및 중국 등 신흥 강국 의 산업화와 소비패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문의 (51) 867-9746

# 개장 앞둔 '더파크' 동물 없는 동물원?

## 현재 겨우 30종 확보…파충류·조류만 득실

내년 4월 문을 열 예정인 부산동물원 '더파크'의 동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동물 수급계획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물원 측이 주문한 동물은 포유류 17종과 조류 13종에 불과하다.

동물원 측이 계획한 123종 428마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문한 동물을 보면 얼룩말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형 포유류와 조류에 불과하며 코끼리, 사자, 호랑이, 낙타 등 대형 동물은 한참 구매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문한 동물조차 구매가 끝나기까지는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장에 맞춰 들어오기 빠듯한 실정이다.

동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하려면 새 우리에 넣고 나서 수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장 일정에 차질까지 우려된다.

전봉민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은 "현재 동물원 공정률과 동물 구매 상황 을 고려하면 제때 문을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개장을 하더라도 전시되는 동물이 시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23종의 동물 가운데 70종이 파충류며, 조류도 16종에 이른다.

박재본 시의원은 "더파크의 동물 수급계약을 보면 사육하기 어려운 동물은 주문조차 안 돼 있고 파충류와 조류만 득실거린다"면서 "이대로라면 시민 기대에 못 미치는 볼품없는 동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이나 경기도, 대전의 대형 동물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도시 규모가 작은 광주나 청주의 동물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불조심합시다' 부산항 앞 해상 퍼레이드** 부산 중부소방서는 20일 부산항 북항 앞바다에서 중부소방서, 국립해양조사원, 부산해양경찰서 등 10개 유관 기관과 함께 '2013년 불조심 홍보 해상퍼레이드'를 했다. 퍼레이드에는 소방정과 해경경비정, 경비정 등 선박 10척, 소방헬기 1대, 소방차량 등 장비 25대와 120여 명이 동원됐다. /연합뉴스

# 폐기물부담금 앞장 '가온길'

## 환경공단 경남권본부 녹색환경리더제 시행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자원본부(본부장 안종익) 폐기물부담금팀은 재활용 사업자 등 적극적 환경 활동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녹색환경리더 가온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녹색환경리더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참여로 마련된 은 정직하고 바른 큰 길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로 강력한 공단의 청렴 내면성 강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온길은 녹색환경리더와의 소통과 협업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나도 한마디'(11월18~29일) ▲플라스틱 폐수 재활용 자발적협약사업자와 더 브오를 '청렴간담회'가 운영된다.

이는 공단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의 기반을 확대해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녹색환경리더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반부패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 26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과 영양' 정보 나눔의 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제2회 암과 영양'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암균식과 항암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암환자 식단 전시, 암환자 열량 보충 식품 전시 및 암과 영양 정보 나눔, 시식회 등으로 나눠 풍성하게 마련된다.

또 암환자와 외래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단 소개와 영양 보충 음식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항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멸균식과 우주식품이 전시돼 관심을 끌 예정이다.

market index <20일>

| 코스피 | 코스닥 | 금리 | 환율 |
|---|---|---|---|
| 2017.24 (-14.40) | 504.16 (-1.34) | 2.98 (+0.05) | 1057.50 (+3.00) |

## 공기청정기의 배신…시중 절반 성능 미달

공기청정기 절반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에 비싼 수입산보다 국내산의 공기 청정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형 공기청정기(전용면적 25㎡ 이하) 10종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89%), LG전자(65%), 웅진케어스(67%), 위닉스(71%), 청풍생활건강(69%) 등 5개의 탈취 효율이 기준치(60% 이상)를 넘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지웰코리아·에어베스(6%), 벤타(34%), 아이엔드디(36%), 오레곤(45%) 등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종합평가에서 수입산인 오레곤(33점), 벤타(27점)는 최하위로 처졌다. /이국명기자

# 세련된 '밍투'야, 중국 중산층을 홀려라

### 현대차, 현지 맞춤형 신차 30대 조중반 소비층 공략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는 19일(현지시간) 광저우시 광저우타워에서 설영흥 현대·기아차 중국담당 부회장, 최성기 베이징현대 부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딜러 대표, 기자단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밍투(영문명 MISTRA)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밍투의 차명은 '원대한 의지의 미래를 좇는다(밍즈투위안)'라는 중국 문장에서 따온 것으로, 중국 내에서 새로운 주류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30대 조중반의 중산층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베이징현대 최성기 부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형차 시장에서 밍투는 동급 차량을 압도하는 세련된 디자인과 상품 경쟁력을 갖춘 전략 차종"이라며 "밍투는 중국 고객들을 위한 전용 신차인 만큼 중국 중형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밍투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두텁하고 선명한 선의 흐름을 통해 역동적인 현대차만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큼직한 헤드램프, 넓은 헥사고날 그릴 등 크고 넓은 것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곳곳에 적용돼 화려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밍투는 전장 4710㎜, 전폭 1820㎜, 전고 1470㎜로 스포티하고 날렵한 외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2770㎜의 휠베이스를 확보해 동급 최고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밍투는 또 다양한 편의 사양과 최첨단 안전 사양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첨단 하이테크 이미지 구현을 위해 ▲각종 정보가 표시되는 TFT-LCD 패널 ▲LED 주간 주행등 적용 ▲운전석 가죽시트 ▲운전석 통풍시트 및 뒷좌석 열선시트 ▲리어 에어벤틸레이션 ▲블루링크 ▲파노라마 선루프 등을 도입했다.

현대차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11회 2013 중국 광저우 국제모터쇼에서 밍투를 전시해 고객들에게 현대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fomar15@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 계란값 여름대비 51% 상승

● 계란 가격이 지난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월 현재 점기지역의 계란 도매가격(이하 특란 10개 가격)은 1600원으로 전년 동월 1058원보다 51% 높은 수준이다. 계란 가격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전년보다 3.7%가량 쌌다. 그러나 7~8월 불볕더위로 산란계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김현기기자

### 9호선 시민펀드 일부 완판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의 판매 첫날 일부 상품이 완판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특별자산 펀드' 중 1·2호(각각 만기 4·5년) 상품이 이날 오전에 모두 판매됐고 3·4호(만기 6·7년) 상품만 남았다. 서울시가 사업재구조화를 위해 기존 주주를 교체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도입한 이 펀드는 오는 26일까지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자센터 (02)721-9833
2002년 5월 31일 등록(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00086)

### 당국, 환율 급락에 '스무딩 오퍼레이션'

외환 당국이 최근 불거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두고 공동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저점인 달러당 1054.3원 붕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환율이 더 밀렸다간 달러당 1000원까지 힘없이 내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와 시장에 공동 개입했을 때의 일방적 쏠림이 아직 해소된 것 같지 않다"며 "환율 하락에 일방적인 느낌이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국은 전날 환율이 계속 급락세를 보이자 여러 은행을 통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 은행과 주요 기업의 외환거래 포지션 변화를 점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더 떨어져 연저점을 하향 돌파하면 당국이 대대적인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울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특별 인하하고, 환위험 회피 상품도 개발한다. /김현정기자 pinkg@

서성이는 '내집 마련 꿈'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모형 아파트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내년 증시 2500"…전망은 전망일뿐?

### 쏟아지는 '장밋빛 보고서'

내년 증시에 대해 증권가가 잇달아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최고 2500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20여 곳이 제시한 내년 코스피 전망치는 최저 1850~최고 2500선이다.

전망치 하단은 1850~2000 사이에 분포됐고 최고점 범위는 2250~2500으로 나타났다.

최고치인 2500을 전망한 곳은 KTB투자증권이다.

하나대투증권(1980~2380), 우리투자증권(1880~2420), 키움증권(1900~2400), KB투자증권(1950~2400), 대신증권(2000~2400) 등도 내년 코스피 상단을 높게 잡았다.

하이투자증권(최고 2350), 동양증권(1900~2350), SK증권(1950~2350)도 최고점 2350을 제시했다.

삼성증권(1900~2300), KDB대우증권(1850~2300) 등 8개 증권사는 상단 전망치를 2300~2349로 봤다.

반면 미래에셋증권(1950~2250), 한국투자증권(1900~2250), 교보증권(1850~2250) 등 3곳은 최고점 2250으로 가장 낮은 상단 전망치를 내놨다.

내년 코스피 하단을 가장 낮게 잡은 곳은 교보증권(1850~2250), 신한금융투자(1850~2320), KDB대우증권 등이다.

다만 증권사의 증시 전망은 실제 주기에 비해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지난해 말 증권사들이 내놓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는 평균 1825~2293이었으나 실제 코스피는 1770~2063 사이에서 움직였다. /김봉기기자 toben@

## 공기업 '진격의 고졸'… 작년 입사자의 25%

공기업 입사자 4명 중 1명은 고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기업이 신규 채용한 4270명 가운데 26%(1105명)가 고졸자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고졸 신규 입사자 비율인 12%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공기업별 고졸 채용 비율에는 대한석탄공사가 68.8%로 가장 높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0.7%로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

## 원더풀론 '조손가정 집수리' 봉사 훈훈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이하 원더풀론)이 최근 조손가정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섰다. 또 조손가정 학생들을 위한 놀이공원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사회공헌은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으로 복지부장관 표창과 국회의장 표창을 받은 원더풀론과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저소득 조손가정과 각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발성 후원이 아닌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을 1년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원더풀론 자원봉사자들은 조손가정의 학생들과 롯데월드 놀이 체험을 진행하는 원더풀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조손가정을 방문해 도배·장판을 교체하는 러브하우스팀으로 나뉘어 따뜻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원더풀론 관계자는 "내년에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연탄 배달, 각종 문화 체험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IT업계 "볼륨을 높여요"

### 삼성SDS 등 '사내 오디오' 임직원 소통채널로 인기

IT 서비스업계가 사내 오디오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해 소통의 문화를 만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사내 오디오 방송 '볼륨업SDS'를 통해 매주 화요일 점심 시간(낮 12시50분)을 활용, 약 10분간 신청곡과 함께 사연을 소개한다.

지난해 2월 첫 방송된 볼륨업SDS는 현재 84회차에 걸쳐 방송됐으며 임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100% 자발적인 신청과 섭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호응도 뜨겁다. 일반 사원부터 부사장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해 본인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독특한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올 4월에는 고순동 사장이 직접 DJ로 출연해 삼성SDS타워 통합신사옥의 입주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LG CNS는 2010년 6월 개국한 사내 인터넷 방송국 오아시스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오아시스는 ▲학습을 위한 '러닝채널' ▲소통을 위한 '해피채널'로 구성돼 있다.

올해 오아시스 기획 '나는 팀장이다'편은 신임 팀장들이 팀원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와 영상을 본 팀원들의 답장으로 이뤄져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나는 사원이다'편은 LG CNS 신입사원들이 입사 이후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주목받았다.

지난 2005년 8월 출범한 SK C&C의 사내 방송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15분간 사내 곳곳에 설치된 TV를 통해 공개된다.

사내 방송에는 주요 기업 뉴스 및 임직원이 궁금해하는 여러 경영 현안에 대한 솜도있는 정보와 각종 사업 및 영업 성공 사례, 신규 사업 진출 사례, 기술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한다.

업계 관계자는 "IT 서비스업체들이 자체 IT 역량을 활용해 사내 방송을 하나의 사내 문화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내 방송은 소속감 고취와 소통·화합의 장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기업이나 직원에게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눈길에선 이정도는 신어야죠" 롯데마트는 27일까지 미끄럼 방지 아동화으로 눈길에도 안전한 베이직아이콘 버클, 버튼 털부츠를 30% 할인된 2만4000원에 선보인다.

/연합뉴스

## 노년 병원비 '연간 296만원' 덜어줄 효자

### AIG '명품부모님보험'

병원비 무서워 병원 못 간다는 말이 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얘기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나지만 비용 부담이 커 자꾸만 미루기 일쑤다.

실제 노년의 의료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96만원으로 2004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94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따지고 경제활동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마땅한 수입이 없어 각종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좋다. AIG '명품부모님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사랑각질환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계약으로 보장해줘 병원비 걱정 많은 노년층에 도움이 된다.

노년에 가장 걱정되는 치매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치매는 간병비까지 따져봐야 한다. 오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한다. AIG 명품부모님보험은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보장해줘 실질적인 치매 대비가 가능하다. 또 치매 간병인 서비스(연 5회)를 선택계약으로 제공, 치매 간병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

치매뿐만 아니라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3대 큰 병 대비도 필수다. AIG 명품부모님보험은 선택계약으로 암은 물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각각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보장한다.

언제 어떻게 아프고 다칠지 모르는 노년, AIG 명품부모님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해 노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자. 더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어 노년 재테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박란희기자 [illegible]

# "경영의 핵심, 사람·소통 깨닫게 해줬죠"

**CEO 추천 '내 인생의 책'** 이정근 사람인HR 대표 '무소유'

"무소유란 개념은 이익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경영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함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크루팅 기업인 사람인HR의 이정근 대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범우사)를 통해 경영의 심오한 이치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배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람인HR은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 기업에는 인재를, 개인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리크루팅 기업 본질에 충실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달에는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 등이 주관한 '2013 올해의 브랜드대상' 온라인 취업포털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는 '우리는 하나의 석영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석영이 또 다른 석영을 함께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안달이다'였습니다. 나 역시 평사원부터 시작해 현재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왔기에 직원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오해가 아닐까라는 반성을 하게 만들었죠. 이런 오해를 버리고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인HR은 소통이 원활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팀 리더들이 비전을 공유하는 리비톡, 열린 마음으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이어가는 '오바마톡', 이기는 습관을 기업 문화로 안착시키는 '이습톡'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대표가 직접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에 나서는 것은 물론 CEO 멘토링 클럽도 운영하며 직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토론과 소통이 기반이 된 기업 문화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져 사람인HR만의 서비스 창출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이 책 덕분"이라며 경영자를 꿈꾸는 직장인이라면 꼭 읽어보길 권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화제의 책

## '모바일서 돈벌기' 그 미래를 한눈에

**모바일 트렌드 2014** 커넥팅랩/미래의창

과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현대는 모바일로 통한다. 게임, 쇼핑 등 오프라인과 PC 시장이 주름잡던 분야에서도 모바일이 대세로 떠올랐다.

통신사와 포털 업계 전문가 8명이 머리를 맞댄 이 책은 올해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모바일 흐름을 짚고 내년 전망을 9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올해 모바일 흐름은 올 아이피(ALL IP) 시대 개막, 구글의 사업 확장, 카카오 콘텐츠 유료화, 삼성의 자체 운영체제(OS) 개발, 애플의 추락 등 5개 키워드로 제시됐다.

내년 모바일 비즈니스 전망을 예측한 부분도 흥미롭다. SNS의 사생활화, 이용자 맞춤 모바일 광고, 모바일 결제의 진화 등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현상들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진단했다. 자세대 황금주파수로 7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를 지목하면서 내년에도 주파수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 흥미롭다.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관련 주파수 확보는 통신업계의 최대 과제가 됐다.

모바일 비즈니스 이슈와 전망을 정리한 가이드로 실정에서 국내 모바일 업계 흐름을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유용할 듯하다. /정윤희기자 unique@

주목 / 이 한 줄

## 잡스의 힘, 생각을 키우는 힘

**스티브 잡스 생각확장의 힘** 유효진/창의서재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천재 중 하나인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만든 애플 컴퓨터를 비롯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는 이러한 잡스의 창의력의 소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잡스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즉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은 잡스의 창의적인 시고와 혁신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다만 잡스는 그 평범한 생각을 조금 더 키우는 법을 알았을 뿐이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잡스를 위대한 혁신가이자 기업가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잡스가 남긴 명언과 연설, 관련된 일화를 정리한 마흔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잡스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확장시켰는지, 그리고 확장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박정용기자 zen@

## '남과 다름'이 '1등 인재' 비결

**누구나 인재다** 홍익희/북스코프

네 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못해 "저능아"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남과 같아지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끊임없이 격려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천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남보다 뛰어남'이 아닌 '남과 다름'을 강조하는 유대인의 창의 교육에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유대인의 창의 교육은 모두를 1등 인재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각자가 지닌 창의성을 끌어낸다면 누구나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 이 같은 교육 덕분에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25%나 배출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직장인을 위한 신간

**부의 감** 루디스 쉬츠/청림출판

부자가 되기 위한 '감'을 강조하는 책이다. 부자들의 특별한 감각을 익힌다면 누구나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주제를 담았다. 경제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10년 넘게 백만장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부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면이 있었다고 밝힌다. 부자들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 수많은 실패에서 번뜩이는 영감 찾기, 약점은 고치는 대신 감정 살리기 등이 그 사례다. 책에 소개된 부자의 감각은 크게 특별하지 않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사례에 접목시킨 느낌도 있다. 결국 실천의 문제다. 가난함에 굴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 움직인다면 누구나 나만의 부자 감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대전쟁** 전영수/이인시각

고속 성장 속에서 20대를 보낸 현재의 부모 세대. 성장은 커녕 하락만 거듭하는 현재의 자녀 세대. 이 책은 일명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들'의 반그룹 경탄전 이랄 세대 갈등을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써내려갔다. 대학 졸업장이 출세 보증수표였던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현 20대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자리 하나 얻기 힘들다. 젊은이들의 기성 세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갈등의 골은 더욱 심해진다. 책을 읽다 보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지닌 은밀한 생각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다. 세대 간 소통을 돕는 공감 키워드 제시도 좋다. 다만 책 내용이 현상 진단 위주라 구체적 대안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0에서 무한까지** 크리스 워링/세종연구원

숫자가 우리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흥미롭게 소개해주는 책이다. 수학이라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이 책은 수학의 탄생 역사와 데카르트 등 유명 수학자의 일대기를 소개하며 흥미를 높였다. 일반인들이 미처 몰랐던 2600년 수학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기술했다. 선사시대의 수학부터 현대의 수학까지 시대순 형식을 취했다.

**나는 성과로 말한다** 류랑도/쌤앤파커스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아야 흥이 나는 법. 이 책은 업무 관리가 아닌 성과 관리로 본인의 '밥값'을 증명하라고 조언한다.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정 관리와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 목표 성과가 있다면 이를 역으로 쪼개 월간, 주간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 비전도 세워야 한다. 장기 계획 없이 닥치는 일만 수습하면 직장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정윤희기자

# 차 떼이고 포 떼이니 '마이너스 우리집'

## 일해도 빚만 차곡차곡…서민가계 흔드는 공공의 오적 잡아라

서민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가계를 둘러싼 각종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가구당 5818만원의 부채를 짊어진 상황에서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이를 근거로 지역난방 요금, 도시가스료 등 다른 공공요금도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택시요금, 식료품 등이 줄줄이 인상됐고 전셋값은 폭등하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인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 혜택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보라는 명분 아래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대상으로 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MB정권의 무리한 4대강 사업 등을 통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민생활기획취재팀=이재구·김신웅·장의정·김민지·박선옥·황재용기자

## 치솟는 전월세 메꾸느라 가계당 평균 부채 5818만원으로 증가
## '지갑 닫고 하루살이 삶' 울리는 공공요금 인상…민심 '한겨울'

**◆서울 아파트 전세가 64주째 상승**

가을 이사철도 끝물로 접어들었지만 전월세난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뒤늦게 이사할 집을 찾는 세입자들은 불과 몇 달 사이 수천만원씩 오른 전세 가격에 선뜻 계약에 나서지 못하고, 어쩌다 나선 물건이 부족해 월세로 돌아서는 경우도 태반이다.

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4주 연속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봄·가을 이사 시즌을 제외하고는 전세 시장도 쉬어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1년 3개월간 단 한 차례의 숨 고르기도 없었던 것이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서민들이 주로 찾는 2억원 미만 전세 아파트도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써브 조사 결과 2008년 62.15%였던 2억원 미만 전셋집은 최근 31.62%로 절반 넘게 줄었다. 현재 서울 평균 전세가도 2억8526만원에 달한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4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6년 가까이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평균 가계 지출액 315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100만원도 저축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하면 전세금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앞으로 또 오른다**

전기요금이 치솟을 전망이다.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경험한 정부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

이 중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택요금은 2.7%를 인상한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대신 도시가스용 LNG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인상된 2.7%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월 1310원 오르는 것이다.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평균 전력 사용량(월 310kWh)을 기준으로 4만8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 적용시 5만130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하면 101~2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2만1660원에서 2만2240원으로 월 580원, 201~300kWh 구간의 가정은 4만3230원에서 4만4400원으로 1170원 인상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일반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전기요금을 5.8% 인상해 일반 음식점 등 서비스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음식점은 계약 전력 20kW로 월 사용량 4147kWh일 경우 56만2940원에서 59만2210원으로 2만927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교육비, 가계 허리휘게 하는 주범**

서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늘어난 가계 교육비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 6.3%보다 높다. 특히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 배가 넘었다.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992만원으로 1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연평균 교육비가 716만원에 달해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가계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20~40대 대학생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불안한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요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12.8%)가 취업·승진(32.6%), '집(값)'(18.3%)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가구당 보험료 2701원 인상**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하는데 매해 11월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올해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에 대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으며 지역가입자 한 가구로 따지면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2701원 오른 셈이 된다.

**◆우유·과자값 등 줄줄이 인상**

각종 원자재 변동에 가장 민감한 부문은 식음료 등 유통업계다.

올해 물가 변동의 가장 핫이슈가 된 것은 우윳값 인상이었다. 지난 8월 말 낙농업계가 원유가를 약 12% 올린 이후 관련 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서울우유를 비롯해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이 우유와 가공유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렸다. 편의점인 세븐일레븐도 PB 제품인 신선한 한우유(930㎖) 가격을 2000원에서 2200원으로 10% 인상했다.

이런 가운데 대표 빙과 업체인 빙그레는 지난 11월 8일 자사의 대표 아이스크림인 '투게더'와 '엑설런트' 가격을 각각 10%, 16.7% 올렸다.

롯데제과 역시 마찬가지다. 이마트와 협상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해바라기 초코볼, 석기시대, 몽쉘 크림 2종류, 몽쉘 카카오 2종류, 몽쉘 딸기 2종류 등 모두 9종의 가격을 평균 11.1% 인상했다. 롯데제과는 롯데마트와도 6개 품목 가격을 2.9~11.1% 인상키로 했으며, 홈플러스와도 일부 제품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 경제강국의 그늘…국민 20%가 빈곤 경험

**'빚의 수렁' 빠진 저소득층**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빚이 지난 한 해 동안 25% 가까이 증가한 데다 재무 건전성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발표한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5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 계층의 부채가 부쩍 늘었다. 1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1246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6% 커졌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부채도 3330만원으로 16.3% 증가했다. 또 임시·일용근로자가 16.9%, 자영업자가 11.3%의 부채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2307만원으로 5만원 증가에 불과했다. 이는 부채 부담과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내수 불황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측은 분석했다.

항목별로는 교육비(-2.9%)와 식료품(-2.0%) 지출은 줄었고 통신비(7.6%)와 의료비(4.7%) 지출은 늘었다. 평균 비소비 지출은 세금(3.6%), 공적연금·사회보험료(8.7%), 이자비용(6.8%) 등이 전반적으로 늘어 757만원에서 830만원으로 9.6% 증가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가구의 21.4%는 최근 2년 새 빈곤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1.6%는 2년 연속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약 350만 명의 국내 신용불량자 가운데 180만 명 가량은 빚을 못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4만 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고령자여서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다. 소득이 없는 이들은 아예 채무조정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서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좋아진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

/김은경기자

# 인도에 여성전용 은행

## '자고나면 성폭행' 여성인권 후진국 오명에 정부가 직접 나서 7개 지점 오픈

인도에 여성 전용 국영은행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잇따른 성폭행 사건으로 여성 인권이 추락한 가운데 정부가 여성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마련한 것.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뭄바이에 여성 전용 '바라티야 마힐라 은행'이 개관했다.

은행은 '여성에게 힘을, 인도에 힘을'이라는 가치를 내걸었다. 직원도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졌다. 이사회는 여성 8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고용된 직원 8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은행 측은 "여성 고객에게 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남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남성도 원할 경우 은행에 계좌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 일부 지역에는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 전용 은행이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여성 전용 은행이 설립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엽기적인 여대생 성폭행이 발생한 이후 여성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부쩍 애쓰는 모습이다. 이번 여성 국영은행 개관을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100억 루피(약 1695억원)로 적지 않은 액수다.

이날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뭄바이 지점 개관식에 참석, 여성 전용 은행의 개관을 축하하며 인도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촉구했다. 싱 총리는 "여성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인도의 슬픈 현실"이라며 "바라티야 마힐라 은행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권리가 큰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다.

인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여성의 26% 정도만 금융기관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가지고 있다. 바라티야 마힐라 은행은 이날 인도 전역에 7개 지점을 열었다. 은행은 내년 3월까지 25개 지점, 7년 뒤 771개 지점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개관 첫날 바라티야 마힐라 은행을 찾은 뭄바이 여성들 /인디아 익스프레스

**요즘 日 최고 스타는 케네디 대사** 캐롤라인 케네디 신임 주일 미국대사가 19일 현지시간 도쿄의 총리관저를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케네디 대사는 부임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일본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가까운 케네디 대사가 미일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AFP 연합뉴스

# 美 이어 노골적으로 일본 편드는 EU

## "집단 자위권 행사 환영"

19일 유럽연합(EU)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해 일본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 일본의 우경화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헤르만 반롬퍼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회담 후 EU와 일본 정상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동아시아 해역에 국제적 긴장감이 도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자유롭고 열린 해양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일본 언론은 이 내용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EU가 일본의 편에 선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아베 정권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저에서 열린 캐럴라인 케네디 신임 주일 미국대사 환송회에서 "아베 총리가 동북아에서 새롭고 강력한 역할을 맡기 위해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에 우리는 정말 흥분되고 기쁘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 남아공 쇼핑몰 공사중 붕괴 2명 숨지고 50여명 매몰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 인근에서 19일(현지시간) 쇼핑몰 건설 현장이 붕괴, 최소 2명이 숨지고 50명이 매몰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건설 중인 쇼핑몰의 지붕이 무너져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 50여 명이 묻혔다. 부상자 수십 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매몰된 근로자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를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구조대원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몰된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구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 음식쓰레기 퇴치 '효녀 암탉'

**metro France**

La poule, future star du recyclage de déchets à Toulouse

프랑스 툴루즈에서 '암탉' 이 쓰레기 처리의 미래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24세의 클레멍 보나페는 오는 24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쓰레기 줄이는 주'를 맞아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엔지니어인 그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30유로(약 4만2000원)를 내면 암탉 두 마리와 닭장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내 목적은 도시 사람들이 농업에 친숙해지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쓰레기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닭을 키울 경우 연간 150~200㎏에 달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 기획은 브라스에 살고 있는 마크 시보의 관심을 끌었다. 은퇴 후 툴루즈 교외에 살고 있는 그는 닭과 닭장을 신청하면 달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해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암탉은 수탉이 없으면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또 특별히 큰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클레멍 보나페 사장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환경에너지위원회의 프랑크 샤튼랭은 "이 사업에 대해 지역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설득 중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툴루즈 폐기물 담당자 엠마누엘 주리에는 "지난 2012년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닭장과 닭을 구입했다. 이를 통해 1당 150~200유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연간 폐기물 양이 1만 5000t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적은 액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델핀 미학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쫑쫑IT리뷰 - 갤럭시 기어+갤럭시 노트3

## 선명한 '손목통화' SF 따로 없네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자 휴대전화 대신 손목형 스마트폰 '갤럭시 기어'를 들었다.

통화 수신 버튼을 누르자 상대방의 음성이 적당한 음량으로 또렷이 들렸다.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리거나 소리가 지나치게 크지 않을까 염려됐는데 통화 품질이 괜찮았다. 기어에 입을 가까이 대지 않아도 음성통화 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기어로 통화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다. 시계를 휴대전화처럼 사용하는 모습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다.

기어는 갤럭시 노트3와 일심동체다. 노트3에서 기어를 조작할 수 있으며 서로 데이터 교환도 가능하다. 노트3의 '내 기어 찾기' 버튼을 누르면 기어에서 소리가 발생해 기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어가 가동성은 좋지만 1.63인치 액정에서 동영상 감상이나 장문의 e메일 확인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기어의 기본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카메라 기능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 전화 다이얼을 실행할 수 있다. 좌우로 밀면 앱으로 이동 가능하다.

특히 기어의 카메라 기능이 인상적이었다.

손목 줄에 달린 렌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각도 조절을 잘해야 하는 점이 관건이다. 시계로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노트3는 무게 172g에 가격은 90만원대. 기어는 무게 73.8g으로 30만원 선이다. /정문희기자

# 무럭무럭 크는 '그린IT'

### 팜유 활용 프린터 잉크-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눈길

후지제록스의 친환경 잉크 '솔리드 잉크'(위)와 LG전자의 저전력 LED 채택 '미니빔 TV'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린 IT'가 뜨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후지제록스는 최근 친환경 잉크 '솔리드 잉크'를 개발했다.

일반적인 레이저 프린트 토너보다 작고 가벼워 배송에 시루 저장 비용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잉크 성분도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종유 성분으로 구성됐다. 솔리드 프린터 CQ 8570과 CQ 8870 등에 탑재된 이 잉크는 특수 왁스를 사용했지만 빠른 인쇄 속도와 품질을 선보인다.

후지제록스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모품을 대폭 제거해 폐기물 양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잉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난 뒤 제거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제품 개발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좋은 인식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이큐브랩은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클린 큐브'를 개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쓰레기통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으로 쓰레기의 불필요한 부피를 줄여준다. 쓰레기통은 낮 동안 저장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압축시킨다. 쓰레기봉투 속 남는 공간을 줄이면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고, 쓰레기 자체의 부산물도 감소시킬 수 있어 발생하는 총 쓰레기 양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큐브랩 권순범 대표는 "쓰레기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피 줄이기란 점에 착안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LG전자는 최근 출시한 '미니빔 TV'에 저전력 친환경 LED 광원을 적용해 3만 시간 이상의 수명을 보장했다.

디지털 기기 전문 매장 '컨시어지'는 중고 IT기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은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 클라우드 기반 '다이나믹스 CRM'

### 한국MS "모바일 연동 강화"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나믹스 고객관계관리(CRM) 2013을 출시했다.

한국MS는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 없이 CRM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다이나믹스 CRM 2013'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했으며 모바일 연동, 데이터 공유, 정보 검색, 소셜네트워크 활용 등을 강화했다.

가격은 1개월 기준으로 CRM 온라인 에센셜 1만6500원, CRM 온라인 베이직 3만3100원, CRM 온라인 프로 7만1700원에 제공된다.

한편 한국MS는 다이나믹스 CRM 2013 출시 기념으로 다음달 1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MS 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다이나믹스 솔루션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icrosoft.com/dynamics/k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MS 다이나믹스 비즈니스 담당 김지현 부장은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CRM 솔루션 진화가 필요하다"면서 "다이나믹스 CRM 2013을 통해 확장된 CRM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돼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20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운전 중에는 핸들만 잡으세요'라는 문구와 관련 이미지가 새겨진 자동차 스티커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 9월 스마트폰 판매량 아이폰5S>갤럭시S4

애플 아이폰5S가 9월 세계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기록됐다.

2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시판된 아이폰5S는 열흘 동안의 판매 실적만으로 다른 모든 스마트폰 판매량을 제치며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삼성전자 갤럭시S4가 2위, 아이폰5가 3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1위의 자리는 뺏겼지만 5~10위가 모두 삼성전자 제품일 정도로 10위권 내 포진한 제품 수가 월등히 많았다.

특히 9월 25일 출시된 갤럭시 노트3는 5일가량의 단기간 판매에도 불구하고 10위권 내에 들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폰 업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영기자

## KT 장기가입 우수고객 "단말기 교체 싸네"

KT는 장기 가입자 중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교체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기변'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좋은 기변'은 현재 KT 휴대전화 15개월 이상 가입자 중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LG 'G2', 팬택 '베가 시크릿 노트' 등 최신형 14개 모델로 기기 교체 시 25만원 특별 할인을 해주는 행사다.

'좋은 기변' 대상 여부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100번, 유선전화 국번 없이 100번)와 전국 올레매장 및 올레닷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신한카드를 통해 가입할 경우 단말기 분실·파손 시 최대 100만원 보상이 보장되며, 사용 기간 중 보험료 무료 제공, 월 2500원의 통신비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보험 무사고 고객은 휴대전화 교체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

# 옥주현 "애증의 초록마녀"

## 뮤지컬 '위키드' 한국어 초연 프레스콜서 "자신감"

연말 대작 뮤지컬 '위키드' 한국어 초연에 주인공으로 나서 화제가 된 옥주현이 혹독했던 연습 과정을 공개하며 공연의 완성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극중 초록 마녀 엘파바 역을 맡은 그는 20일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연습 과정이 혹독해 캐스팅 당시의 기쁨을 잊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만큼 배우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얼굴에 초록색 분장을 한 채 극중 장면 일부를 선보인 옥주현은 "분장 시간 40분 중 30분 동안 피부에 색을 입힌다"면서 "초록 분장은 해도 때려줘야하니까 괜찮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옥주현과 주인공 엘파바를 번갈아 연기할 박혜나와 엘파바 친구인 글린다를 맡은 정선아, 김보경도 참석해 열연을 펼쳤다.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25억 달러(약 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3600만 명을 동원한 히트작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내한 공연은 260억원의 매출, 23만5000명의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국내 상연 뮤지컬 사상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문의 1577-3363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20일 열린 뮤지컬 '위키드' 프레스콜에서 엘파바 역의 옥주현이 열연을 펼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11. 26 10:00~18:00 coex C Hall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일도 행복하게, 삶도 행복하게!

주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후원 KBS MBC SBS

참여 신한은행 한화 GS HANJIN LG SHINSEGAE SK

운영사무국 전화 02.2006.6131 / 팩스 02.2006.9594 Timework.career.co.kr

## 구석구석

파주 장단콩 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날짜 11월 22~24일
–장소 경기 파주시 임진각 광장

국내에서 유일하게 콩을 테마로 한 축제는 '웰빙 명품! 파주 장단콩 세상!'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축제에서는 서리태·백태·쥐눈이콩·선비콩 발콩 등 다양한 장단콩을 구경할 수 있으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또 된장·청국장·간장 등 콩 가공식품과 파주지역 농축산물도 함께 만날 수 있으며 기마솥 순두부 체험, 파주장단콩요리 전국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울카페쇼
–날짜 11월 21~24일
–장소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에는 30개국 500여 개의 커피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데 카페 산업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다채로운 문화공연, 전문가 세미나 등이 준비된다. 특히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마스터 오브 커핑대회, 에스프레소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국내외 커피 업계 거장들을 만날 수 있는 제2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역시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2013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날짜 11월 22일~12월 1일
–장소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축제는 감귤과 관련된 각종 전시·판매·학술행사 등을 준비했다. 국제감귤전시관에선 한국·미국·일본·스페인 등 세계 9개국의 감귤이 소개되고 제주 감귤의 역사를 비롯해 감귤의 품종·관련 농자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우수 감귤 경연대회, 감귤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지고 감귤 경매, 감귤 탑 높이 쌓기 대회·감귤 먹기 대회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철새의 고장 군산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겨울철새를 눈 앞에서 관찰하며 현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며 탐조투어를 통해 철새들의 군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원색 의상 새들이 싫어한대요

### 수십만 마리 새의 군무 감상 ··· 군산세계철새축제 내일 시작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군산시 금강 철새조망대와 습지생태공원, 나포 십자들녘 일대에서 '2013 군산세계철새축제'가 열린다. 눈 앞에서 펼쳐지는 수십만 마리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금강, 철새들의 안식처**

금강 하구는 천수만, 주남저수지와 함께 3대 철새 도래지 가운데 하나다. 매년 10월 하순부터 국제적인 보호종인 가창오리를 비롯해 큰고니, 청둥오리 등 수십 종의 철새들이 금강 하구를 찾는다.

군산시는 금강 하구를 찾는 철새들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포면 십자들 금강 제방에 500m의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금강 습지공원 인근에 대나무 인공섬을 띄웠다. 또 먹잇감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나포면 십자들에 볏짚을 깔고 무논을 만들어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습지생태공원에 갈대와 억새 군락지를 조성하고 귀뚜라미, 잠봉어, 미꾸라지 등 다양한 개체를 방사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이다.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금강 하구를 찾는 철새들에게는 월동을 위한 최고의 안식처인 것이다.

**◆철새 배려하는 생태 축제**

여느 축제와 달리 철새축제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철새다. 주인공이 주인공인 만큼 축제는 그동안의 축제에서 벗어나 생태 축제로 변신을 시도한다. 행사성 위주의 모습과 요란한 프로그램들은 찾아볼 수 있으며 개막식 또한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돼 관광객들이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생태를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산시는 그린코드와 드레스코드를 도입해 환경친화적인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코드를 이용해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은 재활용품으로 대체해 사용할 계획이며 드레스코드를 도입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원색의 옷을 삼가줄 것을 권하고 있다.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해서 원색의 옷을 싫어하는 철새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황금빛 석양과 철새 군무**

생태축제지만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도 많다. 풀피리를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공연과 자전거를 이용한 풍선 올리기, 철새 모이 전단식 새 비행기 날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철새 그림 그리기대회, 새 먹이통 만들기, 새 먹이 포획 체험, 새 먹이 주기, 철새 퍼즐맞춤, 다진 새 돌보기, 새가 되어 날개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10명의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탐조투어는 축제의 백미다.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버스여행 등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된 탐조투어는 금강의 철새들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금강의 황금빛 석양과 철새들의 군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탐조투어는 축제가 끝난 뒤에도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날짜 11월 22~24일(금~일요일)
–장소 전북 군산시 금강철새조망대 등
–문의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 063454-5680

## 서해 배경 선유 8경에 눈 멀고···'탁류' 문학혼에 넋 잃고···

철새의 고장이지만 군산의 매력은 철새축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군산의 매력에 빠져보자.

**◆선유 8경**

선유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선유 8경은 천혜의 비경과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비경인 선유낙조는 군산 관광지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 중 으뜸이다. 서해바다 한가운데 점점이 떠 있는 조그만 섬과 섬 사이의 수평선으로 해가 질 때 연출되는 장관은 평생 기억될 장관을 연출한다. 또 선유도 해수욕장의 백사장 언덕과 어른드리 소나무를 만날 수 있는 명사십리, 바위로만 이뤄진 2개의 산봉우리가 돋보이는 망주폭포, 은빛의 모래사장 위에 내려앉은 기러기 형상의 평사낙안, 조개잡을 앞두고 마지막 자태를 뽐내는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월영단풍은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군산시 (사진 제공)

이와 함께 섬 주민들에게 만선의 꿈을 안겨주는 삼도귀범, 고군산 방벽 역할을 하는 무산십이봉, 장자어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채만식문학관**

일제강점기의 세태를 풍자한 '탁류'의 작가로도 유명한 채만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채만식문학관에서는 재현된 채만식 선생의 행동과 목소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소설 속의 배경과 인물들을 통해 선생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 또 소설 87편, 희곡 28편, 산문·평론 수필 등 총 345편에 이르는 선생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영화 '친구'의 주역 유오성이 12년 만에 귀환한 속편 '친구2'에서 한층 깊어진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는 극중에서 준석이 변한 만큼 세월이 흐르며 자신도 달라졌다고 털어놨다.

## 12년 만에 돌아온 19금의 전설 '친구 2' 반갑다 유오성

2001년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친구'의 주역 유오성이 12년 만에 선보인 속편 '친구2'로 다시 세상을 흥행몰이에 나섰다. 속편은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 최단기간 100만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전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개봉 6일 만인 19일 165만 관객을 넘어 주말엔 200만 관객 돌파가 예상된다. 유오성은 "결과물이 부끄럽지 않게 나온 것 같다"고 만족을 드러냈다.

**# '친구' 신드롬 한때 부담 컸었다**

지금은 흥행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냈지만 영화 개봉하기 전까지는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속설의 부담을 안은 채 관객 앞에 12년 만에 다시 서는 데 대해 어깨가 무거웠기 때문이다.

"보통 영화를 찍으면 기대나 설렘의 감정이 들기 마련인데 이번만큼은 문제에 답안지를 써서 제출하는 숙제를 받은 느낌이었죠. 열심히 풀어서 제출했어요."

더욱이 이번 영화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전편이 개봉 당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로는 역대 가장 많은 82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유오성도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사실 '친구'의 성공이 부담으로 작용해 족쇄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게 훈장이었죠. 그 정도의 흥행을 경험한 배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배우로서 참 감사한 일이죠."

**'친구'와 흥행맞짱 나선 '친구2' 속편 징크스 안두려운 결과물**

**혈기 넘쳐서 '모 아니면 도'이던 극중 준석도 자연인 유오성도 어느덧 세상사 유연해진 중년 그만큼 깊어진 이야기 담았죠**

**# 곽경택 감독과의 불화도 풀어서의 지기**

속편은 준석(유오성)이 전편에서 죽은 친구 동수(장동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후 세상에 나와 조직에서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과정을 그렸다.

시간이 흘러 준석은 혈기 왕성한 청년에서 세상에 조금은 유연해진 중년으로 돌아왔다. 어느덧 사십대 후반이 된 유오성도 유연해졌고 깊어진 연기를 펼치는 배우로 성장했다.

동갑내기 친구였던 곽경택 감독과 '친구'에 이어 아들에 연락, 심의연 을 찍으며 불화로 격어 10년을 거리를 두고 지냈던 유명한 일화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됐다. 이번 속편으로 의기투합해 다시 친구가 됐다는 이들은 인터뷰 장소에서 마주치고는 반갑게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만약 연기를 좋게 봐주셨다면 그건 이미 연기에 세월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게 아닐까 해요. 준석이 변한 만큼 저도 많은 게 달라졌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눠 판단했지만, 지금은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이번 영화를 찍으며 성당에서 영세도 받았다는 그는 "올해는 '친구2'도 찍고 영세도 받아 뿌듯하게 많은 것을 얻은 해다. 지금은 주어진 모든 게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 1인자 준석보다 내 삶 더 나은 여유 '가족'**

준석과 다른 점이라면 유오성에겐 가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친 스크린 속 모습과는 다르게 두 아들의 자상한 아빠다.

"조직의 1인자가 되는 준석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제게는 애잔하고 불쌍하게만 보여요.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가장이란 존재는 안쓰럽지만 전 기댈 곳 있는 가정이 있어서 잘 산 인생 같아요. 평범해도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유오성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친구2'는 조폭영화가 아니라 가족을 갈망하는 한 인간의 꿈을 그린 가족영화다. 준석에겐 조직이 가족 대신인 셈"이라면서 "극장에 갔다 오는 시간을 포함해 네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화"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박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황성며리/손드기리ㅁ 디자인/박은지

star bag

### '1박2일' 시즌3 합류 불발

가수 존박이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합류가 불발됐다.

20일 KBS에 따르면 존박은 새 멤버 출연을 놓고 오랜 기간 논의해왔으나 최근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즌3에는 기존 멤버인 김종민과 차태현의 출연이 확정됐으며 강호동·김주혁·정준영·데프콘이 나머지 멤버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진은 "22일 강원도 인제에서 첫 촬영을 한다. 멤버는 이날 공개할 것"이라며 멤버 확정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 오늘 도쿄서 '일본 팬미팅'

배우 황효주가 2년 만에 일본 팬미팅을 연다.

2011년 10월 첫 일본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21일 도쿄 유라쿠초의 도쿄국제포럼홀에서 현지 팬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미공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낭독, 연주,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황효주는 드라마 '뇌의 왕조' '찬란한 유산', 영화 '관해, 완이 된 남자' 등에 출연해 일본 팬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 첫 베스트 앨범 26일 발표

밴드 씨엔블루가 26일 첫 베스트 앨범 '프레젠트'를 발표한다.

20일 소속사에 따르면 새 앨범은 앞서 일본에서 발매된 베스트 앨범인 씨엔블루 재편 베스트 '프레젠트'를 한국어로 개사한 것이다. 이 앨범에는 현지에서 선보인 자작곡 10곡이 담겼으며 타이틀곡은 일본 여섯 번째 싱글 '레이디'로 결정됐다.

### 에이즈 예방 홍보대사 위촉

가수 윤하가 에이즈 예방에 앞장선다.

소속사는 20일 "윤하가 최근 JK김동욱, 스피카와 함께 '2013 에이즈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면서 "26일 스탠딩드자라드홀에서 빅스·비투비 등이 출연할 '2013 에이즈 예방 캠페인 콘서트' 무대에도 오른다"고 밝혔다. 한편 윤하는 이날 신곡 '괜찮다'를 공개할 예정이다.

## 크레용팝, 호주 방송 떴다

걸그룹 크레용팝이 호주 국영 ABC 방송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는 크레용팝이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호주 국영 ABC 방송 쇼 프로그램 '익살스러운 세계여행'에 출연해 '빠빠빠' 안무를 직접 가르쳤다고 20일 밝혔다.

'익살스러운 세계여행'은 각 나라의 문화와 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호주 제작진은 "한국의 개성 있고 재미있는 K-팝 스타를 만나 노래와 춤을 직접 배우는 과정을 촬영하고 싶었다"며 "K-팝 스타 중 크레용팝이 적격이라고 판단해 섭외했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탐분호기자

## 윤종신 '슈퍼히트' MC 발탁

가수 윤종신이 엠넷 작곡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히트'의 MC로 발탁됐다.

'슈퍼히트'는 실력파 작곡가를 발굴하기 위해 엠넷이 선보이는 국내 최초 작곡 서바이벌이다.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어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 가요의 탄생'을 목표로 현재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심사위원으로 작곡가 윤일상, 돈스파이크, 이단옆차기가 나선 가운데 윤종신이 MC로서 활약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슈퍼히트'는 '슈퍼스타K 5'의 후속으로 29일 첫 방송된다.

/탐분호기자

# 아이돌 연말엔 '팀보다 솔로'다

### 씨스타 효린 26일 앨범 공개·카라 니콜 美 유학준비 등 개별활동 '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연예계의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빅뱅과 JYJ 멤버들이 국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아이돌 가수들의 팀 탈출도 줄을 잇고 있다.

씨스타의 메인보컬 효린은 26일 정규음반을 발표한다. 효린은 20일 공식 트위터에 영국에서 촬영한 화보를 공개하며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화보에서 그는 핫팬츠와 망시스타킹으로 섹시함과 보이시한 매력을 동시에 드러냈다.

엠블랙의 메인 보컬 지오는 2년 만에 솔로 신곡 '플레이 댓 송'을 20일 출시했다. 소속사는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지오가 어떤 솔로 곡으로 보컬리스트적인 면모를 더 시선 있게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다.

원조 아이돌 그룹 신화의 이민우는 다음달 24~25일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에서 개최하는 콘서트 '2013 M 이민우 크리스마스 라이브'의 티켓 4000장을 3분 만에 매진시켰다.

내년 1월 소속사 DSP미디어와의 계약이 끝나는 카라의 니콜은 2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솔로로 새 출발을 준비한다.

이처럼 최근 가요계에는 아이돌 그룹이 안정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룹보다 솔로 활동에 전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2년에 한 차례 그룹 앨범을 내고, 그 사이 멤버들은 자신의 특기를 살린 개별 활동에 치중한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데서 보듯이 아이돌 그룹의 역량이 커지고 활동 영역이 넓어진 것"이라며 "대형화된 연예기획사들의 수익 확대 차원에서도 개별 활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순호기자 sunn@metroseoul.co.kr

솔로 전향을 앞둔 니콜과 개별 활동이 활발한 지오·효린(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K-힙합★' 긱스·팬텀, 인니 달군다

올해 힙합의 대중화를 전면에서 이끈 긱스와 팬텀이 한국 아티스트들 대표해 인도네시아에 K-팝을 소개한다.

이들은 24일 자카르타 풀라자 간다리아 시티몰에서 대규모 K-팝 쇼케이스 '바간자'은 노벰버'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두 팀뿐 아니라 K-팝 제작 시스템으로 발굴돼 훈련받고 현지에서 데뷔한 인기 아이돌 그룹 S4와 SOS도 참여해 양국의 음악 매력을 각각 선보인다.

/유순호기자

# '러블리 걸' 입맞춘 예쁜 남자 다섯명

### JYP 신인 파이브라이브 공식데뷔 전 깜짝 공개

JYP가 내년에 출격시킬 신인 그룹 '파이브라이브(5Live·사진)'를 20일 깜짝 공개했다.

JYP는 파이브라이브라는 팀명을 공개하고 20일 오후 12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KBS2 수목드라마 '예쁜남자' OST 수록곡 '러블리 걸'을 선보였다.

파이브라이브는 9월 방영된 YG의 신인 보이그룹 멤버를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윈'에 출연해 YG 연습생과 대결을 펼쳤던 JYP 연습생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팀으로 현재 데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블리 걸'은 작곡가 김형석의 곡으로 일반적인 퍼포먼스 아이돌 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팝 록 스타일의 곡이다. 극 중 주인공 독고마테(장근석 분)의 테마인 '러블리 걸'은 세련된 편곡과 멜로디가 특징이다.

'예쁜 남자' OST를 깜짝 공개하며 베일을 벗은 파이브라이브가 어떤 콘셉트로 가요계에 본격 출격할지 이들의 데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보은기자 yiu@

# 추위에도 촉촉 '방패크림' 바르셨군요

### 청담동 뷰티족·연예인 꿀피부 비결 -터치 바이 이경민 '익스트림 쉴드' 3종

춥고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 트러블이 쉽게 일어날 뿐 아니라 노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올겨울 푸석푸석한 피부결과 속당김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원장이 톱 여배우들의 촉촉한 피부 관리 비결을 공개했다.

**◆170시간 강력 영양 방패막 '나이트 크림'**

이경민 원장은 연예인처럼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꼼꼼한 '나이트 케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몸속 세포의 재생력이 최고로 올라가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 나이트 케어 전용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청담동 뷰티족과 연예인들 사이에 '방패크림'으로 불리는 터치 바이 이경민의 '익스트림 쉴드 나이트 크림'은 트리트먼트 보습 효과로 겨울바람에 빼앗긴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그대로 채워준다.

촉촉한 수분 크림과 리치한 고농축 밤 제형이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된 제품으로 피부 외곽으로 보호막을 형성, 최대 170시간 동안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

이 크림의 비밀은 '스노 알게'에 있다. 스노 알게는 영하 19도 스위스 극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희귀 성분으로 뛰어난 피부 재생력과 수분 보습력으로 다운 에이징 효과를 전해준다. 여기에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20여 가지의 천연 유래 성분을 더해 피부에 자극 없이 스며들며 밤새 영양을 공급한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여배우 광채 피부의 비밀 '데이 크림'**

낮 시간대 꼼꼼한 스킨케어도 필수다. 하지만 피부를 위한다고 이것저것 바르다 보면 메이크업이 들뜨기 일쑤. 이럴 땐 고기능 멀티크림 하나면 해결된다.

터치 바이 이경민의 낮 전용 케어 제품인 '익스트림 쉴드 데이 크림' 하나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까지 한 번에 지킬 수 있다.

이 제품은 손상된 피부 개선에 효과적인 마데카소사이드 성분과 고농축 영양성분을 함유해 수분감은 물론 손상된 피부 결 개선한다. 보습은 물론 미백, 주름 개선까지 도와줘 메이크업 직전 가볍게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연예인의 생얼처럼 화사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갑자기 일어난 각질에는 '앰플'을 활용하는 게 좋다.

터치 바이 이경민의 '익스트림 쉴드 마스터'는 피부 각질과 트러블을 다스리는 겨울철 긴급 처방 듀얼 앰플이다. 전용 어플리케이터가 내장돼 있어 각질 부위에 가볍게 문지르면 고기능의 영양 성분이 각질을 제거해 들뜬 피부를 확실하게 잠재운다.

/박지원기자

## 스파에 몸 담근 채 '화이트 크리스마스'

### 웅진플레이도시 이벤트 잇따라

도심형 종합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다음달 25일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한다. 눈과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스파존에는 '화이트 윈터 스파'를 마련했다. 노천 스파에 제설기를 설치,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도 하얀 눈을 맞으며 스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실내 스파존에서는 새하얀 버블로 가득 채운 '화이트 버블 스파'와 어린이 전용 스파 공간인 '크리스마스 볼풀 스파'도 새롭게 선보인다.

건강을 생각주는 한약재를 활용한 '한방 스파'도 운영 중이다.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해소와 피부 미용에 탁월한 구기자와 한방 재료를 스파에 접목시킨 구기자탕, 따뜻한 성질을 지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강해주는 당귀를 활용한 당귀탕이 실내 스파존에 마련돼 날씨에 관계없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스페셜 이벤트로 최대 3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 눈썰매와 산타 이글루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산타 이글루에서는 산타의 깜짝 선물 이벤트와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며,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즐거운 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문의 playdoci.com

/박지원기자

## 한경희 알칼라이온수 생성기 오늘 12시40분 현대홈 방송

한경희생활과학은 21일 낮 12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현대홈쇼핑에서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를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조가 없는 직접 정수 시스템을 채택해 '묵은 물' 걱정이 없고, 이온수 출구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자동 밸브 기능으로 안정된 수소이온 농도값(pH)을 유지한다.

가격은 5년 약정에 월 2만9900원이며, 전문 기사가 6개월마다 방문해 점검하고 필터도 무상 교체한다. 2차 방송은 25일 낮 12시 40분에 진행된다.

## 겨울 문턱 책 권하는 강강술래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매달 다른 업계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강강술래는 출판그룹 갈벗과 손잡고 독서 붐 조성을 위해 '하루 30분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11월 추천 도서인 김루열의 '힐링여행서적 유럽여행 백심사전 500'과 하버드 정신과 의사가 쓴 '분노 해소의 기술' 다큐집을 증정한다.

고객과 소통하고 감성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 이벤트도 마련했다. 국악의 새다른 변신과 함께 한국의 몸짓과 소리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최초 라이브 국악 뮤지컬 '판타스틱' 티켓(1인 2매)도 선물된다.

또 녹차 명가 보성그룹과 손잡고 함 예방·피부 미용 등의 기능을 가진 국내 최조 유기농 보성녹차 음료 세트(30개) 증정 이벤트도 실시한다. 30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올리면 누구나 모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 30분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 11월 추천도서 선정 선물 증정

한편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한우사골곰탕 선물 세트(600㎖·5팩=15인분)는 3만7800원, 박스 세트(600㎖·10팩·30인분)는 7만5600원에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신송식품의 신안비다천일염(1.5㎏·5000원)을 사은품으로 준다.

/박지원기자

## '블랙야크 셰르파' 2기 100명 모집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아웃도어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블랙야크 셰르파' 2기 100명을 모집한다.

제2기 셰르파는 캠핑·여행·바이크·사진 등 활발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30일까지 블랙야크 마운틴북 홈페이지(www.mountainbook.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두달전 허니문 예약 매일밤 최고급 만찬

몰디브의 대표적인 럭셔리 리조트인 길리 랑칸푸시 리조트(GILI LANKANFUSHI MALDIVES)가 '얼리버드 허니무너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프로모션을 통해 2달 전 사전 예약을 하면 2인 기준 미화 200달러 상당의 최고급 만찬을 숙박 내내 제공받을 수 있다.

리조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시즌의 자회사인 HPL호텔 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로 몰디브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다.

상품 문의는 몰디브 전문 여행사 고몰디브에서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11개 도시 무료셔틀·RFID 시스템 도입 등 스키장 고객 유치전쟁 치열

# 설원의 유혹 골라 가세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스키장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11일 가장 먼저 개장 신고를 마친 스키장은 보광 휘닉스파크다. 휘닉스파크는 개장 당일 67대의 제설기를 가동하며 슬로프 정비 등에 만전을 기했고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휘닉스파크는 11개 도시 무료 셔틀버스 노선을 가동했으며 익스트림 브랜드 버튼의 최신 렌털 보드장비를 확대 도입했다. 또 지난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매년 1만원씩 할인해주는 MAD(Manus Annual Discount) for 휘팍패스'라는 상품도 개발했다.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지난 15일 발라드 슬로프를 오픈하면서 시즌을 개장했다. 총 183대의 제설기와 제빙기 시스템으로 제설에 힘을 쏟은 비발디파크는 최상의 설질을 제공하기 위해 1일 3회 슬로프 정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발디파크는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게다가 클래식 레게 슬로프 중단부를 확장(길이 30m 넓이 5~8m)했으며 대형 콘서트 등 다채로운 상설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기상 상황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스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미타임패스, 슬로프점원제 등 색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왔던 곤지암리조트는 미타임패스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미타임 V멤버쉽을 선보이며 무료 강습을 희망하는 고객을 위한 원포인트 스키 강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의 불편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렌털 이원화 시스템에 반납 전용 창구를 신설하는 등 렌털 프로세스를 보다 강화했고 올 시즌 동안 올바른 스키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 15일 개장한 하이원리조트는 이달 안으로 아테나, 제우스 등 7개의 슬로프를 오픈할 계획이며 알펜시아는 22일 초급자 코스인 일희 슬로프 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키 시즌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곤지암리조트 제공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김장철 대한민국 주부의 허리는 울고있다

## 무리한 허리 움직임 척추에 압박 가해 디스크 유발··무거운 것 한꺼번에 들지 말아야

서울시 천호동에 사는 장모(56)씨는 매년 김장이 끝나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고생했지만 얘간의 휴식을 취하면 고통이 사라져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김장을 끝낸 장씨는 요통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언네 거동조차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 집 근처 병원을 찾은 그녀는 간단한 물리치료로도 고통이 완화되지 않자 MRI 촬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2주 이상 요통이 지속되면 정밀한 검사 필요**

매년 김장철이면 병원을 찾는 주부들이 급증한다. 김장을 하면서 무리해 잠복해 있던 허리디스크나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나타나 진료를 받는 것이다.

특히 허리디스크는 다른 근골격계와는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된다. 추간(척추 사이)판이 노화됨에 따라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과 파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비만,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척추에 압박·원전력을 가해 추간판 중앙의 수핵이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된다.

어런 허리디스크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디스크 환자가 값비싼 MRI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전체 환자의 80~90% 정도는 약 1~3개월의 휴식과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금세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뚜렷하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요통이 지속된다면 MRI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신경의 눌린 정도나 이상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이미 디스크 탈출이 진행돼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통증도 심하게 나타난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

경피적신경차단술(Block)이나 경피적경막외신경성형술(PEN), 고주파수핵성형술, 미니(미세)레이저시술(SELD) 등의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허리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수술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이 각광받고 있다.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은 직경 3mm의 가느다란 관에 1mm의 초소형 내시경과 레이저를 장착한 후 환자의 천추골과 꼬리뼈 사이에 천추열공으로 삽입해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로 국소마취하에 환자와 집도의가 대화를 하며 진행된다.

특히 국소마취를 통해 피부 절개 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시간도 30분 내외로 짧아 시술 후 안정을 취한 후 곧바로 귀가할 수 있다. 또 디스크와 요추간관협착증, 디스크 파열, 급성·만성 요통, 척추수술 후의 통증증후군 등 요추부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 등을 갖고 있는 내과적 질환 환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나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하지 마비나 대소변 장애 등 신경이상이 동반되면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 역시 최근에는 미세현미경과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을 통해 수술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민형식 강동 튼튼병원장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과잉 진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의와 함께 자기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며 "요즘같이 김장철이 되면 디스크로 고생하는 많은 주부들이 병원을 방문하는데 김장을 할 땐 무리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무거운 것을 한 번에 들거나 옮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 테트라팩 '에코 캠페인' 성황

테트라팩 코리아는 지난 15~17일 그린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한 친환경 '에코 솔루션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테트라팩은 행사 기간 롯데마트 구로점에서 그린카드와 탄소 인증을 받은 종이팩 음료를 홍보했으며, 부스 방문 고객 중 그린카드를 소지 및 장바구니 사용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는 고객 3000명에게 테트라팩 종이팩에 담긴 음료(정식품 베지밀/뒤몬트 골드)를 증정했다.

그린카드는 녹색제품 구매, 생활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포인트로 적립해 경제적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친환경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서지희기자

# 이대목동병원 'CQI 으뜸상' 영상검사 시간 단축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18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제14회 CQI(Critical 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시행된 병원 내 각 부서의 의료 서비스 개선 활동을 평가하고 직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으며 1등인 으뜸상은 '영상검사 대기 시간 단축'을 발표한 영상의학과 일반촬영실이 차지했다.

또 2등인 버금상에는 '성공적인 엄마 젖 먹이기'를 발표한 모자센터와 '전화 응대 서비스 질 개선'을 발표한 고객만족 실천위원회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경진대회에서는 박정관 CS(고객만족실)계장의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특강도 진행됐다. /황재용기자

# 60세 이상 무료 우울증 검사

## 정동병원 내달 6일까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정동병원이 60세 이상의 정형외과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병원은 실제로 정신과에서 활용하는 BDI(Beck's Depression Inventory) 우울증 검사지를 활용해 우울증 위험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사지는 인지적·정서적인 분야 13문항과 신체수행 분야 8문항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4점 척도(0~3점)로 적용되는 각 답변의 점수 합산으로 우울증의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병원은 검사 진행이 어려운 노령 환자를 위한 봉사자를 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 전문의를 통해 테스트 결과를 알려주고 우울증 발병 유형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김창우(사진) 정동병원 대표원장은 "이번 우울증 검사가 노인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로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 상금왕 노리는 박인비 페테르센과 한조 대결

박인비(25·KB금융그룹·사진)가 상금과 평균 타수 1위를 놓고 경쟁하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시즌 최종전 첫 라운드에서 경기한다.

세계 랭킹 1~3위인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 투어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마지막까지 타이틀을 다툰다.

상금 부문에서는 박인비가 239만3513달러로 1위, 페테르센이 228만4326달러로 2위, 루이스는 187만4630달러로 3위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70만 달러로 결과에 따라 1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루이스가 69.48타로 1위, 페테르센이 69.59타로 2위, 박인비는 69.9타로 3위다. 박인비가 2년 연속 최저 타수를 기록하려면 루이스를 30타 가까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역전은 쉽지 않다.

한편 프로 첫해를 치르는 리디아 고(16·뉴질랜드)는 미셸 위(24·나이키골프), 제시카 코르다(미국)와 같은 조로 1라운드를 시작한다. /박승호기자

## '우즈 여친' 본 연습중 부상

스키 여제 이자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37)의 여자친구로 유명한 린지 본(29·미국)이 스키 연습 도중 부상을 당했다.

AFP통신은 본이 20일 미국 콜로라도의 코퍼마운틴에서 활강 훈련을 하던 도중 전복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상 정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올림픽 2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려던 차에 터진 사고라 관심이 쏠린다.

올해 2월 무릎을 수술한 본은 부상을 털어내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해 출발하려는 시기에 또다시 악재를 만나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수술한 무릎을 다시 다친다면 아예 소치올림픽을 포함한 올 시즌 전체를 건너뛰어야 할 수도 있다. /정성근기자

### 프로축구 전적 20일

| 서울 | 4 | 1 | 전북 |
|---|---|---|---|

### 프로농구 전적 20일

| | | | | | |
|---|---|---|---|---|---|
| 전자랜드 | 13 | 19 | 21 | 18 | 71 |
| KT | 11 | 17 | 22 | 15 | 65 |
| SK | 9 | 22 | 18 | 23 | 72 |
| 오리온스 | 12 | 24 | 20 | 13 | 69 |

### 프로배구 전적 20일

| 현대캐피탈 | 3 | 0 | 러시앤캐시 |
|---|---|---|---|
| 도로공사 | 3 | 2 | 인삼공사 |

**죽다 살아난 프랑스** 우크라이나와 1차전에서 패배해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 좌절의 위기에 놓였지만 19일(현지시간)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3-0으로 승리하며 극적으로 본선 티켓을 손에 쥔 프랑스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0-2로 패했으나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했다. /AP 뉴시스

# 스위스·그리스·알제리면 '환상'

**브라질 월드컵 본선국 확정**

**프랑스·포르투갈 등 막차로 합류 … 다음달 7일 조추첨**
**톱시드 탈락한 네덜란드·이탈리아 등과 한조되면 최악**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로드맵이 완성됐다.

포르투갈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 진출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격전을 앞두고 있는 32개 나라가 사실상 확정됐다.

20일 세계 각국에선 A매치가 일제히 열린 가운데 여러 팀들의 운명이 갈렸다. 유럽 대륙에선 월드컵 지역예선 플레이오프를 통해 4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4팀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아프리카에서도 본선 진출국들이 확정됐다.

이번 월드컵에는 큰 이변 없이 전통의 강호들이 잇달아 승차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등이 본선에 진출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나와 알제리가 본선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멕시코는 오세아니아 지역 1위 뉴질랜드를 따돌렸다.

현재 남은 본선행 티켓은 1장으로 이 티켓의 주인공은 21일 열리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 우루과이와 요르단의 2차전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1차전에서 우루과이가 요르단을 5-0으로 대파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32개국이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다음달 7일 열리는 조 추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우루과이 등의 진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던 시드 배정, 포트 구성도 윤곽이 잡히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예상도 가능해졌다.

한국 대표팀은 2그룹(포트 2) 편성이 유리해지고 있다. 대륙별 안배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고려해 포트가 배정되는 가운데 아시아와 북중미 팀들이 묶이는 2그룹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최상의 조 편성은 각 포트별 약체 팀과 만나는 것으로, 스위스·알제리·그리스와 한 조에 묶이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힘든 일정이 예상된다. 전통의 강호들이 톱시드에서 탈락해 어디를 가도 죽음의 조가 될 확률이 높다. /유순호기자 yswl@metroseoul.co.kr

# 홍명보호 내년 1월 재소집…브라질·미국 전지훈련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한국과 러시아의 평가전에서 김보경(오른쪽)이 러시아 골문 앞에서 세르게이 이그나세비치와 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친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재소집돼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한 마지막 훈련에 돌입한다.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러시아와 친선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홍명보 감독은 다음달 7일 브라질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열리는 조 추첨식에 참석한다.

대표팀은 내년 1월 15일 다시 모여 브라질과 미국 등에서 3주간 전지훈련을 한다. 브라질 훈련지는 한국이 조별리그를 치르는 장소를 고려해 최적의 장소로 결정될 예정이다. 브라질에서 1주일간 실전 적응 훈련을 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본선을 위한 최종 전력을 구축한다. 대표팀은 미국에서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3월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두 차례 정도 유럽팀과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4, 5월 국내에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브라질로 향한다. 브라질 월드컵은 6월 13일 개막한다. /유순호기자 sun@